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

◎ 정치

[광역자치단체장\(시도지사\) 직무 수행 평가 \(2023년 하반기\)](#)

한국갤럽_2024.1.5.

[북한이 핵에 돈 못쓰게... 국민 61% "제재 유지·강화해야" \(외교안보 여론조사\)](#)

중앙일보_2024.1.4.

[‘정부 견제론’ 우세속 정당 지지도는 초접전... ‘안갯속 판세’](#)

문화일보_2024.1.2.

[지방의회 55%, 의원 구속돼도 월급 준다...공무원 15% "부패 있다"](#)

조선비즈_2024.1.4.

◎ 2024 전망

[올해 성장률 2.2% 전망...소비자물가 2.6%](#)

연합인포맥스_2024.1.4.

[금리 올해는 내려가려나, 살아남으면 봄이 온다](#)

한겨레_2024.1.5.

◎ 사회 일반

["대선 때보다 '사회갈등 심각' 인식 증가...세대갈등 부상"](#)

연합뉴스_2024.1.6.

[새해부터 글로벌기업 '15% 최저한세'...출산 주택특공·증여공제](#)

연합뉴스_2023.12.31.

[정부 부패 개선됐지만...93% "부패 고위공직자 처벌 공정치 않아"](#)

연합뉴스_2023.12.31.

["출산 주저 이유...첫째 아이는 집값, 둘째·셋째는 사교육비"](#)

중앙일보_2024.1.4.

["애 낳으면 1000만원"... 충북 파격 승부수 통했다](#)

국민일보_2024.1.5.

[2023 로또6/45 구매 관련 인식 조사](#)

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.1.3.

["조의금 10만원 부담돼? 할부도 됩니다"...아무도 몰랐던 '사실'](#)

헤럴드경제_2024.1.4.

[외국인들 '최애 한식'은 치킨-라면-김치](#)

동아일보_2024.1.5.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

◎ **청년 / 청소년**

['위기의 청년들'...자살·자해로 응급실 방문 50~70% 급증했다](#)

연합뉴스_2024.1.3.

[“담배·술 경험 청소년, 마약 손 댈 가능성 높다”](#)

뉴시스_2024.1.4.

[의대도 양극화...수시 미충원 '최상위권 0명 vs 지방대 24명'](#)

연합뉴스_2024.1.5.

[20대 여성 6~7명중 1명은 저체중...비만 아닌데도 46% 다이어트](#)

연합뉴스_2024.1.8.

◎ **경제 / 기업**

[135만 경단女 날개펴면 실질 GDP 7% 증가](#)

매일경제_2024.1.2.

[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평균 1억5900만원... 투자비 회수는 3.6년](#)

국민일보_2024.1.5.

[노동자 과로사 60%가 30명 미만 업체서 발생](#)

한겨레_2024.1.5.

["젊은꼰대가 더 힘들어"...전세계로 퍼진 M과 Z의 충돌](#)

아시아경제_2024.1.5.

◎ **세계**

[유엔,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.4%로 하향...한국 2.4% 예상](#)

연합뉴스_2024.1.5.

[미국 '리더십 위기'...국민 지지율 50% 넘는 공직자 1명도 없어](#)

연합뉴스_2024.1.5.

◎ **건강**

[30, 40대 수면 장애...“10년 후 인지장애 부를 위험 크다”](#)

조선일보_2024.1.4.

[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하니 응급실 찾는 아이 61% 늘었다](#)

조선일보_2024.1.2.

◎ **기독교 / 종교**

[“학령인구 감소 예방하려면 학생별 맞춤 교육 이뤄져야 해”](#)

더미션(국민일보)_2024.1.4.

*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

[넷째부터 1000만원 지급... 출산장려금 2배 올린다](#)

[더미션\(국민일보\)_2024.1.5.](#)

◎ 기획기사 : 잠시만 부모가 되어주세요 <1>, (서울신문)

[위탁부모 절반 이상, “위탁아동 또 돌볼 의향 있다”](#) _2023.12.31.

[3756명, 사회가 품어야 할 아이들... ‘가정형 보호’가 절실하다](#) _2023.12.31.

[“얼마 받고 키우냐” “무슨 덕 보자고 남의 애를” 가시가 박혀도...](#) _2023.12.31.

[핏줄은 아니지만 우리도 가족입니다](#) _2023.12.31.

[“얼마 받길래 키우는거냐”...위탁부모 두 번 올리는 사회적 편견](#) _2024.1.3.

[양육지원금으론 턱없이 모자란 학원비·식비... ‘불쌍한 아이’ 시선도 부담](#) _2024.1.3.

[위탁부모 헌신에만 기댄 채... 양육예산 지원엔 인색한 정부·지자체](#) _2024.1.3.

[10명 중 1명만 친부모 품으로... ‘원가정 양육’ 지원해 줄 제도가 없다](#) _2024.1.3.

[보호자 아닌 동거인...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짚어진 ‘제도 밖 위탁부모’](#) _2024.1.3.